



협회 제41차 정기총회 개최, 신임 김유곤 감사 선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11년 12월 16일 산업안전연수원에서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협회의 한 해 각종 산재예방사업을 결산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지난해 협회는 대행사업장의 재해율을 51%, 재해자수를 1,315명 감소(2011년 10월 기준)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협회 신진규 회장은 “경기 침체 속에 산업재해까지 늘어난다면 국가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산재피해를 입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며 “앞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사회공헌 활동 등에 더욱 정진해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협회는 신임 감사에 김유곤 前한국노총상임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김유곤 감사는 (주)유평의 노동조합위원장,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산재의료원이사 등을 역임했다.

협회-한노총서울본부 산재예방을 위한 MOU체결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의장 박대수)가 2011년 12월 13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 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원 ▲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산업안전에 관한 사업의 발굴 및 활성화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신진규 협회장은 “재해예방에 있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협회와 산업현장 근로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힘을 합쳐나간다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문화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대수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총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안전기술본부, 구로노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 안전기술본부(본부장 김재현)가 2011년 12월 8일 서울시구로노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안전기술본부는 지난 지난해 1월 17일 복지관과 결연 협약을 맺고, 매월 3째주 월요일에 식당설거지 및 환경정리 등의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또한 협회 노동조합에서 받은 후원품을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문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기술본부 대표로 감사패를 받은 변효경 주임은 “항상 마음에만 담아두고 실천을 못했던 봉사활동을 좋은 기회에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뿌듯했다”라며 “감사패를 받은 두 손이 부끄럽지 않게 봉사활동에 더 열심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지회, 노사정 한마음 결의대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회(지회장 장동주)가 대구지역 노동관련유관기관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청량산에서 '신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노사정 한마음 결의대회' 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관내 사업장에 신 노사문화의 정착을 결의하는 한편, 노사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한 대구경북을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수영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노사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지회 2011년 회원 송년회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지회(지회장 조영수)가 2011년 12월 9일 지회 교육장에서 '2011년 회원 송년회' 를 개최했다. 회원 송년회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송문현 청장, 정영삼 산업안전과장, 근로감독관 등 관내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사업장안전보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지방노동청 송문현 청장이 직접 고용노동부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또한 한 해 동안 산업재해 감소에 많은 공헌을 한 안전보건관계자들을 포상하는 자리도 마련됐다.